

## 보고서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과 가장 저렴한 도시들

### 세계 주요 도시 생계비(Cost of Living) 비교

[글] 김목한 hookman@si.re.kr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Worldwide Cost of Living 201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



2017 Cost of Living Survey  
Mercer, 2017

## 세계 도시들의 생계비를 비교해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돈이 듭니다. 도시가 자리 잡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도시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생활비용은 각기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도시에서 사는 데 드는 돈도 서로 다릅니다. 도시를 둘러싼 여건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한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도시가 비싼 도시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생활비’라고도 번역되는 ‘생계비(Cost of Living)’란, 말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늠하고 비교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세계 주요 도시의 생계비를 조사한 두 보고서를 비교해보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비싼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요.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계열사인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c Intelligence Unit, EIU)의 ‘Worldwide

Cost of Living 2017'과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머서(Mercer)의 '2017 Cost of Living Survey'에 따르면, 서울은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생계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 EIU: 2017년 서울의 생계비는 세계 주요 도시 6위 수준

EIU는 지난 30여 년간 'Worldwide Cost of Living' 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 뉴욕의 생계비를 100이라고 잡았을 때, 해당 도시의 생계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는 방식인 세계생계비 지수를 기준삼아 순위를 매기지요. 2017년 기준으로 보자면 133개 도시의 160여 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400개 이상의 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했습니다. 환율 변동 등 경제상황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반영하구요.

전반적으로 2017년 생계비 상승폭은 전년 대비 74%로, 지난해의 73%에 비해 살짝 올랐습니다.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5년 전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5년 전 132개 도시 평균 생계비는 사상 최고 수준인 93.5% 올랐었다고 하니까요. 사실 5년 전에 비해 순위도 많이 바뀐 셈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당장 뉴욕만 해도 5년 전에는 전체 도시 중 46위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9위를 기록했지요. 파리와 잠깐 비교해보자면, 2017년 파리의 생활비는 뉴욕의 생활비보다 7%밖에 비싸지 않지만 5년 전에는 50% 더 비싼 편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생계비 순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생계비가 가장 급속히 오르고 있는 지역은 단연 아시아라고 합니다. 우선 1위 도시인 싱가포르만 해도 지난 4년간 연속 세계에서 생계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세계생계비 지수는 120이니 뉴욕보다 20% 정도 생활비가 비싼 도시인 셈이죠.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아시아 도시가 10위 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계비가 높은 도시는 홍콩이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가 각각

표1 세계에서 생계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도시

The ten most expensive cities in the world

Country	City	WCOL index (New York=100)	Rank	Rank movement
Singapore	Singapore	120	1	0
Hong Kong	Hong Kong	114	2	0
Switzerland	Zurich	113	3	-1
Japan	Tokyo	110	4	7
Japan	Osaka	109	5	9
South Korea	Seoul	108	6	2
Switzerland	Geneva	107	7	-3
France	Paris	107	7	-2
US	New York	100	9	-2
Denmark	Copenhagen	100	9	-1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서울이 여섯 번째로 생계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50위였다고 하니, 그간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예외였습니다. 지난 1년간 생계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10개 도시 중 절반이 중국 도시들이었지요. 베이징, 다롄, 쑤저우, 광저우, 톈진 등이 3~5위 하락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베이징, 다롄은 중상위권, 나머지 도시들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대륙으로 눈을 돌려보면, 순위 자체는 중하위권이지만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브라질 도시의 생계비 순위는 무려 12단계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웰링턴이나 오클랜드 같은 뉴질랜드 도시는 상위권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11단계 올라 공동 16위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한편 순위로만 보자면, 아시아는 가장 생계비가 낮은 도시들이 포진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위 10개 도시를 보면 인도의 뭍바이나 뉴델리, 그리고 파키스

탄의 카라치와 같은 도시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렴한 생계비가 꼭 좋은 의미인 것만은 아닙니다. EIU는 생계비 순위에 더해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조사(liveability survey)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순위를 비교해보면 생계비가 저렴한 도시가 살기 어려운 도시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많은 도시의 생계비가 높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서울의 생계비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에 대한 달러의 약세가 기본적인 배경이기는 하지만, 부문별로 보았을 때 서울의 생계비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유럽 도시들은 레저나 엔터테인먼트 쇼핑 분야가 비싼 반면 아시아 도시들은 식품과 음식 구매 분야가 가장 비싼 지역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은 이런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시아 도시입니다.

종합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의 자동차나 옷이 비싼 편이지만 가사용품이나 개인 생활용품,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식음

표2 상위 10개 도시 부문별 가격 비교

Prices now and then: The top ten cities

	City	Singapore	Hong Kong	Zurich	Tokyo	Osaka	Seoul	Geneva	Paris	New York	Copenhagen
Average US\$ price 1kg loaf of bread	Current	\$3.55	\$4.61	\$5.66	\$7.41	\$5.91	\$14.82	\$6.62	\$6.81	\$7.95	\$3.55
	Last year	\$3.40	\$4.36	\$5.85	\$6.43	\$5.23	\$12.44	\$7.02	\$7.42	\$8.28	\$3.23
	5 years	\$3.46	\$5.08	\$7.95	\$9.64	\$8.00	\$9.81	\$7.08	\$10.10	\$6.42	\$5.03
	10 years	\$2.81	\$4.15	\$5.83	\$6.17	\$4.49	\$5.85	\$4.93	\$5.76	\$5.75	\$2.73
Average US\$ price 1 bottle table wine (750ml)	Current	\$23.68	\$15.72	\$14.17	\$11.89	\$13.33	\$26.54	\$8.20	\$10.35	\$14.74	\$12.87
	Last year	\$22.39	\$16.47	\$14.17	\$10.64	\$11.86	\$25.43	\$8.06	\$10.71	\$14.03	\$11.57
	5 years	\$26.47	\$13.22	\$21.24	\$16.59	\$14.94	\$26.65	\$9.79	\$9.80	\$10.27	\$12.20
	10 years	\$19.38	\$14.84	\$9.63	\$10.85	\$9.27	\$24.73	\$8.03	\$7.39	\$9.93	\$10.15
Average US\$ price 20 branded cigarettes	Current	\$9.63	\$7.47	\$9.29	\$4.45	\$4.45	\$4.01	\$9.29	\$8.67	\$14.25	\$6.44
	Last year	\$9.15	\$7.48	\$8.57	\$3.86	\$3.86	\$3.71	\$9.08	\$7.85	\$13.67	\$6.41
	5 years	\$9.94	\$6.46	\$9.87	\$5.73	\$5.73	\$2.35	\$10.13	\$8.43	\$9.73	\$7.82
	10 years	\$7.13	\$3.86	\$4.88	\$2.74	\$2.74	\$2.61	\$4.88	\$6.14	\$6.67	\$5.26
Average US\$ price 1 litre unleaded petrol	Current	\$1.44	\$1.73	\$1.49	\$1.24	\$1.18	\$1.28	\$1.52	\$1.45	\$0.61	\$1.63
	Last year	\$1.46	\$1.76	\$1.56	\$1.18	\$1.12	\$1.25	\$1.56	\$1.69	\$0.63	\$1.57
	5 years	\$1.70	\$2.13	\$2.26	\$2.00	\$2.00	\$1.84	\$2.29	\$2.76	\$1.12	\$2.33
	10 years	\$1.12	\$1.73	\$1.37	\$1.26	\$1.22	\$1.58	\$1.36	\$2.00	\$0.67	\$1.61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그림 1 머서 해외 주재원 생계비 도시 순위 종합



자료 Mercer, 2017

료만 보자면 싱가포르의 생계비는 상하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동경, 오사카는 세계에서 생필품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납니다. 특히 서울은 식료품값이 뉴욕보다 50% 더 비싼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빵이나 와인 가격은 상위 10개 도시와 비교할 때 거의 2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지요. <표 2 참조>

### 머서: 2017년 서울의 생계물가 지표도 세계 주요 도시 6위 수준

머서의 생계비 조사는 EIU와 유사하게 'Cost of Living Survey'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머서의 조사는 해외 주재원 생계물가 지표이

며,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해외 파견과 관련된 보상 정책을 운영할 때 활용된다고 합니다.

머서는 EIU와 유사하게 전 세계 209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하여 물가를 조사합니다. 뉴욕을 기준으로 도시 물가를 비교하고,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을 확인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다만 해외 주재원이 체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표화했다는 점에서 실제 생계비를 다룬 EIU의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써 2017년 세계에서 해외 주재원 생계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앙골라의 르완다였습니다.

머서의 결과에서도 아시아 도시의 생활비 상승이 두드러진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IU와 똑같이 상위 10개 도시 중 5개가 아시아 도시들이었습니다. 홍콩이 2위로 가장 비싼 아시아 도시였고, 도쿄가 3위, 싱가포르

르가 5위, 상하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EIU의 순위와 같은 6위를 기록했고요.

2016년의 결과에서 서울은 15위였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무려 9위 상승하여 2016년 상위 15개 국가 중 생계비가 가장 많이 오른 도시가 되었죠. 주요 원인은 원화까지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원화는 2016년 상위 15위권 안에 속한 나라의 통화 중 환율인상 폭이 가장 큰 통화였습니다.

순위 변동으로만 보자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무려 117단계 뛰어올라 35위를 기록했고, 브라질 상파울루가 102단계 오른 2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미국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도시들의 생계비 순위도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과 선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11위와 12위를 기록하여 상위 15위 안에 들었죠.

인도의 도시들은 EIU의 순위와는 달리 상위권이거나 중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인디아의 가장 비싼 도시인 뭄바이는 지난해에 비해 25단계 오른 57위였고, 뉴델리는 99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반면 파키스탄의 카라치는 EIU의 조사와 비슷한 201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주재지에 속합니다.

## ‘먹고살기’ 힘든 서울

두 조사는 정례적으로 세계 도시들의 생계비 현황을 짚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이나 별도의 주장을 담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서울의 생계비 순위는 흥미롭게 비교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EIU의 자료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생계비 순위를, 머서의 자료는 서울에 주재하는 주재원의 생계비 순위를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서울은 두 자료 모두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에 있어서는 살건 머무르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도의 도시들처럼 이 두 경우가 일치하지 않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서울은 그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히 원화 강세의 영향이 컸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EIU의 자료를 보면 서울은 생필품, 특히 식음료 부문의 지출이 비슷한 순위의 도시들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장난 같습디만, 먹고살기 중에서 먹기가 더 어려운 도시라는 이야기겠지요. 여기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IU와 머서의 지표 산출 등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참고문헌에 소개한 웹사이트와 문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2016년 원유 가격이 바다를 치고 작년에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한 바, 그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가나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순위 교체가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순위도 변하겠지요. 하지만 순위의 높고 낮음보다는 살기 좋은 곳이어서 생계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W**

---

#### 참고문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 Worldwide Cost of Living 2017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ww.eiu.com](http://www.eiu.com)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ww.worldwidecostofliving.com](http://www.worldwidecostofliving.com)
- Mercer, 2017, 2017 Cost of Living Survey
- Mercer, [www.mercer.com](http://www.mercer.com)
- 머서코리아 [www.mercer.co.kr](http://www.mercer.co.kr)